韓·日의 文化·社會 比較

朴 桂 銀
〈국제특허연수원 교학과장〉

本 內容은 東京大 文化人類學科의 韓國 東亞細亞地域을 專攻하는 이또아인(伊藤亞人) 教授의 講義를 要約, 抜萃한 것으로, 그는 서울대 연대에서 한국어를 工夫하고 한국어로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며 전남, 진도, 제주도, 경북 안동 수몰지역에서 滯留하며 實際生活狀態를 체험하면서 韓國의 文化·人類學的 측면을 研究하였고, 체류기간은 約 2年 정도였다.

韓日間의 文化·社會를 比較하기는 쉽지 않으나 文化·人類學的 側面에서 보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서 日本人이 보고 느낀대로 차이나는 점을 간단히 강의한 것을 적어보았다.

1. 文化의 等質性, 多樣性에서는 오는 차이

○韓國·日本의 지도상의 위치, 기후

—韓國의 겨울은 북쪽은 —25℃, 남쪽은 —5℃로 전반적으로 4월중에 꽃이 피고, 10월중에 꽃이 지며, 비교적 동일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日本의 겨울은 북해도는 —35℃, 남쪽은 열대지방으로 북해도는 5월 하순 꽃이 피고, 남쪽은 1월도 수영이 가능하며, 연중 꽃이 핀다. 日本 동쪽의 겨울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으며, 서북쪽은 눈이 많이오고 겨울에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춥다.

—일본은 3,000m 이상 산이 20個 정도있고, 2,000m 이상 산이 아주 많이 있다.

○日本은 소수민족이 있으나 한국은 없다.

—일본에 있어서 소수민족은 아니누족, 琉球족, 在日朝鮮人 등으로, 과거에는 전통문화를 소유하였으나 현재는 日本化되고 多樣化되어 전통의 인정을 받지못하고 있다. (文部省에서 소수민족을 不認定)

—특히 琉球민족은 옛날에는 다른 民族이었으나 明治維新 때 合併되었다. 합병되기 前에는 아이누 민족보다 소수민족으로 독특하고 일본 音樂과도 差異가 있으며, 17C에는 가고시마 縣의 支配를 받았고 淸나라에 使節도 보냈다고 하며 지역마다 言語가 큰 차이가 있었고 漁業만을 專門으로 하였다.

○地方文化 多樣性

—덕천막부시대부터 各地域에 군웅할거하며 各藩에 言語, 食生活에 차이가 있었고 言語의 多樣性은 文化의 多樣性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제주도 언어만 독특하지만 일본은 오사까, 가고시마, 오끼나와 등의 언어가 독특하다.

2. 生業의 分化와 住居의 차이

○일본은 한국보다 生業이 分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漁業, 林業(山居)만 하는 사람이 일본은 많았으나 한국은 비교적 적다. (한국 예:심마니)

—일본 海女는 어업에 專業하고 있었으나 한

국의 海女는 어업도 하고 農事도 짓는다.

－日本에서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육지에 집이없고 배만 타고다닌 家船 즉 船世代를 1940년까지 구성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가보면 바닷가에 비교적 일본보다 사람이 적고 농사만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바닷가의 풍속으로 泣女의 "아이구" "아이구"는 비슷함을 볼 수 있다.

○家屋－住居

－한국의 초가집은 외형상 별로 차이가 없으나 일본 가옥은 차이가 뚜렷하다(별첨 1). 예로 후지산 기슭, 동경 변두리, 아이누족의 가옥 등

－言語, 집구조 생업 등에도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김치는 대개 지방마다 비슷하나, 일본의 반찬은 지방마다 차이가 많이난다.

3. 中華文明으로부터 大傳統의 수요와 土着化

○대전통(great tradition)이란 中國의 종교, 문화, 한문 등으로 한국, 일본, 오끼나와 등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

○종교측면에서 한국은 유교가 生活化되었고 불교는 한국이 일본보다 순수한 형태로 남아있다. 다만 일본도 불교의 기초형태는 남아있으며 도꾸가와(무사)계급에서 유교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男女有別, 長幼有序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무사계급이 유교사상을 부분적으로 받았으며 서민층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4. 민속신앙

○일본의 토속신앙은 한국적 토속신앙과 비슷하다. 즉 제주도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무당, 무당춤이 성행했다.

○오끼나와 등지에서 일본의 전통적 무속이 있었고 일본은 한국보다 미신이 많이 남아있다.

5. 친족체계 차이

○친척체계 구분을 보면 단계(單系)와 非系(雙系)로 나누어지고, 單系는 父系(母系는 25%)로 한국, 만주, 몽고, 아랍, 중공 등의 체계이고, 父와 母 즉 雙系는 日本, 인도네시아 체계이다.

○일본은 3代만 알고 族譜가 없으며, 무사계급은 家承譜만 있다.

○한국은 男女有別이나 日本은 男女복종 관계이다.

○일본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만 조상으로 모시고 姓은 무사계급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姓이 없었으나 後에 姓을 부여받았다.

○오사까에서는 墓에 비석을 세웠으며 다른 地方에서는 없었다. 墓도 33년까지만 存在하고 그후는 돌이나 나무표지 등을 제거함으로써 자연히 없어졌으며 비석에는 伊藤「家」累代之墓라고 새겼다.

6. 家(いえ)와 집의 차이

○일본에서는 家를 家業 또는 世業 개념으로 管理의 代를 이어서 인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韓國은 단순히 집 그 자체만을 뜻한다.

○日本의 家는 農家, 商家, 武家, 公家, 職人, 藝道 등으로 家業의 경영은 超世大的으로 屋號, 家印 등을 사용하고 상업, 특수한 기술 등은 專門化 시키고 本分을 지키며 비장의 技術은 傳承시키고 자식이나 특정 종업원에게 가르치는 祕傳이 이어지고 技能을 重要視하며 獨立性이 강하고 security를 갖는다.

○또한 信用을 지키고 商標, 去來關係, 老鋪, 심볼(暖簾:노랭으로 家를 상징하는 독특한 문자체를 상호에 넣는 것)을 중요시하고 창업자 정신이 뚜렷하며 다른 분야에 손대지 말라는 家訓이 있고 第3代, 第4代의 누구라도 조상의 家業정신이 확고하다.

○전통적 도자기, 칠기분야에서는 "오야붕" 기질이 있어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위, 종업원, 차남도 주인의 代를 이을 수 있고 자기 아들이 家를 잘못 유지하거나 아니할 경우 다른 家에서 훈련을 받게하고 가족관계간이 사이가 나쁠경우 父子之間의 사이를 끊으며 한 집에서 살 수 없고 거래도 끊는다. 또한 分

家할 경우 分家한 사람끼리 돕는 정신도 철저하다.

○家에 對한 主人의 系譜認識이 넓고 계승, 연속성이 뚜렷하며 自律性이 있고 혼인, 거래, 사교 등에서 상호의존하며, 오래동안 傳해내려오는 物件에 대해서도 identity를 이룬다.

○예를 들면 과자 "요깡" 만드는 家가 代代로 東京大 정문옆 50m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공무원을 하다가 꿈에 부친이 가업을 계승하라고하며 공무원을 그만두고 "요깡" 비법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또한 누룩을 밤늦게 갈아서 발효시키는 것이 밤에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맛있게 만들어 진다는 옛부터 내려오는 製造方式을 중요시하고 있다.

○오댕만드는 방법도 90년동안 동일가마를 매일 사용하여야 똑같은 맛을 유지한다는 제조기구를 중요시한다.

7. 지역공동체 차이

○옛날에는 농어촌은 독립적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행정상, 세제상, 공동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즉 마을 앞산, 뒷산의 나무를 자를 수 없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였다.

○일본에서는 동네 사람끼리 결혼하였고 도시나 먼곳에서 얻어온 男子나 女子는 좋지못한 不信의 대상이 되었다. 즉 自律性, 閉鎖性, 內婚性이 強하였다.

○일본은 마을마다 神社가 있어 참배하고 묘는 거의 없고 동네제사(神社－まつり)를 지낸다. 또한 도시에서도 신사를 모시고 있으나 한족은 이러한 것이 없어 일본과 같은 지역공동체 개념은 없다. 한국은 神社는 없고 祖上께 제사를 지낸다. 참고로 일본은 神社→村社→君社→縣社로 이어지고 官位를 주어 국가에서 財政支援을 하였었다.

○한국 농촌은 外國人이 하루저녁 자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나 일본 농촌은 하루저녁 자는데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려운데 이는 일본 농촌의 폐쇄성을 의미한다.

8. 社會구조와 직장

○일본의 社會구조를 보면 共同體(Corporate Group)를 연상할 만큼 독특하다. 즉 공동체의 안과 밖이 차이가 있고 동동체 하나가 법인적인 주체가 되고 법인내에서 공동 목표달성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구성하고 個人은 공동체의 member가 된다. 일단 member가 되면 귀속감이 생겨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되어지며 그 안에서 기술도 배우고 socialization이 생기며 人脈(social network)이 형성된다.

○일본에서는 직장에 들어가면 친척이나 타직장 사람들과는 어울리기가 힘들고 직장내의 동료, 선후배간 어울리며 local community가 이루어지고 부인까지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정년퇴직때까지 회사에 몸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록 脫社會的이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업무를 履行하며 이로써 生活이 保障된다. 즉 직장은 人格的인 이외에 모든 것이 생긴다. 따라서 日本의 공동체 개념을 社會學的으로 primary group으로 첫째 꼽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 개념은 일본보다는 弱한 集團的 규범(Loyalty)으로 직장내 보다는 동창생, 地緣, 學緣 등 주변에 영향을 받고 人格的 Personality가 重要하며 背景가진 사람과 가까와진다.

9. 物質 對 精神

○한국은 儒教의 影響으로 생각, 말 등 精神的인 면을 重視하고 日本은 物件, 物質에 집착하며 이를 重視한다. 物件에 집착하는 것은 곧 技術을 重視한다고 한다. 또한 日本 博物館에 유명한 사람의 물건인 만년필, 원고지 등을 통해서 identity를 느낀다.

○日本人은 말로 애기하는 것은 안되고 물건을 媒介해야 하며 물건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한다.

○日本人은 자기가 쓴 物件에 혼이있다고 믿고 모든 物件이 魂이 있다는 Animism을 믿는다. 한국은 物件에 대한 혼의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 社會에서는 선물을 많이 하는데 고맙다는 뜻－自己表示로 나타낸다.

○또한 日本은 土俗的 Animism이 남아있다. 例로 針供養－바늘을 두부에 꽂아 바늘에 감사하는 마음 등

10. 歷史의식과 Identity

○日本은 歷史를 明治維新 以前까지는 時代를 區別하여 使用하였다. 또한 지금(今)과 옛날(昔)만을 썼다. 일본은 족보가 없으므로 할아버지 이상은 모르므로 그 이상을 昔이라고 하고 1,000年前이나 300年前도 昔이라고 表現한다. 특히 農村의 할머니들은 昔밖에 쓰지 않으며 대개 祖上관계는 할아버지 이상을 昔이라고 사용한다. 小說家, 文人, 宗教人, 軍人들도 옛날 사람을 昔으로 전체 통칭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국은 時代別, 人名別(祖上 등)로 區分하여 歷史를 說明하고 歷史認識을 갖는 區分이다. 즉 代를 연결하는 歷史이다.

○일본은 天皇 등 어느 특정인에 대한 歷史의식이 물질적이 아닌 identity로 작용하며 그 歷史를 國家로 본다. 이것을 神化論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친족적인 측면에서 歷史意識이 있고 日本은 親族的이 아니고 地域的인 면과 공동체적인 面에서 歷史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지역의 어느곳이 자기 조상이라는 祖上巡禮이고 일본은 명승고적만을 주로 巡禮한다.

○따라서 歷史의식이 한·일간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친족관계 위에서 歷史의식이 이루어지고 일본은 非인간적인 관계에서 역사의식이 이루어진다. 일본은 제도안에서 구체적 범위에서 자유도 없고 융통성이 없으나 한국은 역사인식에 있어서 융통성, 주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한·일간의 사회문화를 비교하는 목적은 일본 사람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을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위의 비교내용이 양국간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바랄뿐이다. 〈♣〉

신간안내

소련총람
북방권연구회 편
규격: A5신·318면 가격: 5,000원

新商標法解說
江口俊夫 著 鄭完燮 譯
규격: A5신·352면 가격: 10,000원

판매: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타(전화 (02) 551－5571~2)

신간안내

英·韓産業財産權(工業所有權)用語集
규격: 국판 320면
발간: 한국발명특허협회
가격: 5,000원